

초·중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글썩요'

광주교육청 교사 212명 설문...“상위권 학생들만 혜택” 교사들 “교육격차 해소 역기능...예산 대비 효과 낮아”

광주지역 교사 10명 중 7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원어민 영어교사) 제도에 대해 ‘투입 예산대비 효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설문에 응한 초·중학교 교사 절반 이상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역량, 근무태도, 교육효과 등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내국인 교사 영어교육 연구 강화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나는 원어민 영어교사를 통해 외국인과의 언어에 대한 친밀감을 키우고 영어 실력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교사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시교육청 교육정책 연구소가 최근 펴낸 ‘광주 영어교육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원어민영어보조교사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겼다. 보

교사 작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초교 교사는 212명, 중학교는 100명이었다. 이들은 원어민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다.

설문에서 초등학교 교사 71.2%는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예산 대비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초교 교사 31.1%는 예산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전혀 아니다)고 응답했다. 효과적이라고 답한 초교 교사는 28.8%에 그쳤다.

중학교 교사 역시 61.0%(전혀 효과 없다), 21.0%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효과적이라는 답변을 한 중학교 교사는 39.0%에 그쳤다.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원어민교사의 역량 부족, 불성실한 근무태도(시간때우기식 수업 등), 교육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알파벳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점에서 내국인 교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원어민영어교사를 통해 교육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학생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선 초등학교 교사 46%가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상위권 학생(교사 43.7%), 중위권 학생(9.5%), 하위권 학생(0.5%), 최하위권 학생(0.0%)였다.

초등학교 교사 89.9%는 광주시교육청 영어교육 관련예산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원어민영어교사 제도의 혜택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되면서 학생들간 교육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중학교 교사들(75.3%) 역시 원어민 영어교사 제도에 따른 교육혜택이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된다고 봤다.

교사들은 원어민영어교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원어민교사 감축 ▲내국인교사

연수 확대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에서는 원어민교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주 각급 학교에 투입되는 원어민 영어교사는 2017년 기준 125명이다. 평균 체류기간은 2년, 학위와 경력 등 조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을 보수로 받는다. 이들은 주당 20시간 정도 가르치며,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은 이들로부터 주당 1~2시간씩 배우고 있다.

원어민 영어교사 사업비는 광주시교육청의 영어교육 정책 관련 전체예산(2017년 89억원)의 56%(49억여원)에 달한다. 반면 내국인 교사 영어연수지원은 전체 예산의 4%(3억5000만원)가 쓰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EBS 교재 출제 교육권 침해 아냐”

현재 ‘EBS-수능’ 연계정책 첫 합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10개 중 7개꼴로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교육·입시 정책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낮추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해 온 ‘EBS-수능’ 연계정책에 대한 현재의 첫 결정이다.

현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8년도 수능시험을 준비하던 권씨 등은 교육부가 이 같은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현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무술년 소원을 말해봐”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1일 광주 북구 용봉동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2018 빛고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달집태우기를 하며 무술년 소원을 빌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백혈병 사망’ 고압선 정비사 첫 산재 인정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근로자 장모(당시 53세)씨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다.

유족과 노조는 장씨가 26년간 고압선 정

비작업을 하면서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해왔다.

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직접적인 인과적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전자파로 인한 직업병을 인정해 달라며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희기자 kimyh@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1 해질 18:46
해짐 18:28 달짐 07:10

“부림 드세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3/11	보성	맑음	-5/8
목포	맑음	-3/7	순천	맑음	-2/10
여수	맑음	-1/8	영광	맑음	-6/7
나주	맑음	-5/10	진도	맑음	-2/6
완도	맑음	-2/10	전주	맑음	-5/9
구례	맑음	-6/10	군산	맑음	-5/6
강진	맑음	-3/10	남원	맑음	-6/10
해남	맑음	-5/9	축산도	맑음	-1/5
장성	맑음	-5/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남동~남	0.5~1.0
	면바다	북~북동	1.0~2.5	남동~남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남동~남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5	남동~남	0.5~1.5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동~남동	1.0~1.5
	면바다(서)	북~북동	1.0~2.5	동~남동	1.0~1.5

생활지수

눈	높음
뇌졸중	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1	20:02	02:10	14:49
여수	03:09	15:37	09:37	21:52

주간 날씨

3(토)	4(일)	5(월)	6(화)	7(수)	8(목)	9(금)
☀	☁	☁	☀	☀	☀	☀
4/14	8/15	6/10	1/12	1/10	1/9	2/10

오늘밤 정월대보름달 볼 수 있다

큰 추위 없이 일요일 비소식

정월대보름인 2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아 대부분 지역에서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광주·전남지역의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서쪽에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또 오후부터는 따뜻한 남

서풍이 유입돼 3일부터는 다시 평년수준(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4도, 최고기온 10도에서 13도)의 기온을 회복하겠다.

4일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는 비소식이 있으며,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정월대보름인 2일 광주는 오후 6시 46분께 달이 떠올라 다음날 오전 7시 10분께 지겠으며, 달이 가장 높은 고도에 떠있는 남중시간은 3일 새벽 0시 28분께로 예상됐다. /김형호기자 young@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기준 2배 강화

2일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다. 우선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10% 이하, 정밀검사는 15% 이하→8% 이하로 2배 강화된다.

또 연진 전자 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

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장치와 관련된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검사받는다. 승합차·화물차는 이날부터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이 강화된 정기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사업용인 경우 2019년부터, 비사업용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검사 대상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까지 확대되며 소용검사와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검사 시기는 2021년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70630-중-83294호

마음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어깨 통증과 손저림!
목 디스크일까요? 아니면 어깨 문제일까요?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시다면?”
목디스크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전 메이저리, 기아 타이거즈 서재용 선수

비수술,
부분마취, 척추 치료는
첨단우리병원!

세심한 검사와 정밀한 진단으로 진료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